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7년 1월 4일 · 제 389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김은수 실장,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미국 남동부 월명탄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냉장창고 건설·운영
2. 미국 CSIS, 2017년 새해 중국 일대일로 관련 17개 교통물류 인프라사업에 주목
3. 베트남 교통부, BOT 건설 도로구간 통행료 인하 발표
4. 2017년, 동남아시아 환적허브 경쟁 격화 전망

| 물류시장동향 |

1. Mann+Hummel 남아공에 애프터마켓 물류센터 운영 예정
2. 한진해운, 시애틀항의 터미널 운영권 매각





물류정책 · 사업동향

미국 남동부 윌밍턴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냉장창고 건설 · 운영

- 윌밍턴항 냉장창고 PWCS(Port of Wilmington Cold Storage)는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에서 최초로 항만구역 내 설치된 냉장창고임
 - PWCS 창고는 미국 InvestCo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항만당국의 합작회사로서 창고 설비는 InvestCo사가 소유하지만 그 외 재산권은 항만당국이 소유함
 - 총 프로젝트 비용은 1,750만 달러로 사전 개발, 건설, 시운전을 포함한 것임
- PWCS 냉장창고는 과일, 야채, 육류 등 신선화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101,000 ft²(=9,383m²) 규모임
 - PWCS 창고는 300만 ft³(=84,951m³)의 냉동 및 냉장 공간과 10,600 팔레트 보관 공간이 있음
 - PWCS 창고 내부는 ① 고객 요구에 따라 냉장 혹은 냉동으로 전환가능한 룸, ② 0℃ 이하의 냉동 룸, ③ 24시간 내 0℃로 치킨, 돼지고기를 냉동시킬 수 있는 송풍동결 룸 3가지가 있음
- 윌밍턴항은 냉장 돼지고기와 닭고기 제품, 기타 신선화물을 수출하는 주요 허브 항만인데, PWCS 냉장창고가 건설되기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수출업자는 타 지역의 냉장창고를 이용함
 - 냉장창고 설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신선화물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 분석에 따르면 냉장창고 수요의 88%가 식품, 12%는 제약, 화훼, 모피제품임
 - 특히 제약 회사들은 온도 조절이 필요한 백신이나 생약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냉장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PWCS 냉장창고는 노스캐롤라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선화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PWCS의 대표이사인 Chuck McCarthy씨가 언급함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농업은 총생산액의 17%(84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한 산업인데, 특히 육류, 야채의 아시아 수출뿐만 아니라 냉동 고구마튀김의 유럽 수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음
- 2016년 8월 이전에는 한진해운이 윌밍턴항에서 아시아 항만으로의 운항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파산선고 이후 머스크선사가 한진해운을 대신해서 2016년 10월 8일부터 아시아 직항서비스를 하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 농무부 해외 투자 부이사인 Robert Hosford씨는 항만 근처에 냉장창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농업과 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커다란 이점이 된다고 밝힘



- PWCS 냉장창고 설비는 노스캐롤라니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의 주요 부분이며, 고객에게 편의성, 물류 서비스 지원, 신속한 배송, 운송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노스캐롤라니아 항만 이사인 Paul J. Cozza씨가 밝힘



윌밍턴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PWCS 냉장창고

자료 : www.globaltrademag.com

자료 : www.globaltrademag.com, 2016.12.28. / www.ncports.com, 2016.12.12.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미국 CSIS, 2017년 새해 중국 일대일로 관련 17개 교통물류 인프라사업에 주목

- 미국의 저명 민간 싱크탱크인 CSIS는 최근,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전망하며 17개 대형 물류인프라 프로젝트를 “2017년의 주목할 프로젝트”(17 Projects to Watch in 2017)로 선정함
 - 17개 사업은 2017년 완공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 착공될 대형 사업들로, 카스피해 바쿠의 바쿠 국제공항, 동남아의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 바쿠-트빌리시-카스(Baku-Tbilisi-Kars) 철도 등 대부분이 교통·물류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들임
 - CSIS는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의 중요성에 근거한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년간 “아시아의 재연결”(Reconnecting Asia)이라는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모니터링과 관련됨
- 중국 일대일로 관련 17개 사업의 지리적 분포는 구 CIS(아제르바이잔 바쿠),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생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극동(하바롭스크 주 사마르가항), 파키스탄(카라치) 등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있음
 - 바쿠공항(또는 Aylat공항), 아나클리아 심해항, 바쿠-트빌리시-카스 철도, 테레스폴 드라이 포트(폴란드) 사업 등은 모두 2016년 착공했거나 2017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임
 - 또한 17개 사업은 중국 일대일로상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 ECs)에 속해 있음
 - 17개 사업 중, 이른바 “진주 목걸이 계획”과 관련, 중국이 수년간 개발·이용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과 말라타 국제공항의 경우, 지분의 80%를 중국측 기업이 사들이는 계약이 공식 체결될 전망이다
- CSIS는 부산공항 제2배후도로(고속도로) 사업도 중국 일대일로 관련 주목해야 할 17개 사업 내용에 포함시킴
 - 부산공항 제2배후도로 사업은 부산항 신항만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광역 배후 수송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2년 7월 착공해 2017년에 완공 예정임¹⁾
 - CSIS는 동 사업을 “서울과 부산을 잇는 신규 물류루트”로 소개하고 있으며, 완공 후 한국의 전국적인 연결성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글로벌 해운산업에도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17개 주목할 사업 가운데에는 홍콩-주하이-마카오 교량 등 중국 내 일대일로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 인도 차바하르항, 카라코람 고속도로처럼 중국과 내륙 또는 해운 루트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2017년에 진행될 예정임

1) 이하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상세정보는 www.ex.co.kr을 참조.



- 홍콩-주하이-마카오 교량 사업은 홍콩과 주하이 및 마카오를 연결해 중국 주강 삼각주의 교통물류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토목기술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음
- 이란 남부 차바르항은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개발에 대응하여 인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

2017년 주목할 중국 일대일로 관련 17개 대형 사업

사업 명	사업 개요 및 주요 특징
바쿠(Alyat) 신항	- 카스피해 남부 서안(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항)에 위치 - 터키, 이란, 인도, 러시아, EU를 연결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	- 말레이시아의 수도와 싱가포르 연결(총 연장 350km) - 2017년 착공 예정이며, 고속철 수주에 중국중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음
바쿠-트리빌시-카스 철도(일명 BTK 철도)	-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그루지아 연결 철도 - 2007년 착공했으며 2017년 완공 예정임
중국-라오스 고속철	- 중국 남부 내륙 쿤밍과 싱가포르를 잇는 철도회랑(420km) - 2017년 공사 착공
달리-루일리 철도	- 중국 6대 경제회랑 중 방글라데시-중국-미얀마-인도 경제회랑의 일부 - 중국 중철이 건설 중이며 2022년 완공 예정
아무르교	-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와 중국 헤이룽장 성을 연결하는 교량 - 2018년 완공 예정이며, 러시아극동개발기금과 러중투자기금으로 건설
사마르가항	- 러시아 극동 연안과 하바롭스크를 연결, 운송구간을 500km 단축 - 2016년 말 사마르가홀딩스가 창립되었으며, 2025년 완공 예정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 2017년 완공 예정 * CSIS는 이 도로를 부산-서울 신규 고속도로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유의
M-11 모스크바-성 페테르부르크 자동차도로	- 해당 구간의 기존 M-10 도로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규 건설 예정 - 2018년 월드컵 개최 이전 준공 예정
카라치-하이더라바드 자동차도로(M9)	- 6대 경제회랑중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관련 - 2017년 준공 예정(2개 차선 추가)
투르크멘바시 국제항	- 카스피해 동안에 위치하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연결의 허브 - 2017년까지 확장 공사 완료
베스키드 철도 터널	- 우크라이나의 Lviv 및 Chop간 병목 현상 해소 목적 - 2017년 준공 예정
우크라이나 우회철도	-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분리주의자간 분규 우려로 러시아 정부가 추진 - 우크라이나 동부를 우회하는 철도로 2017년 8월 준공 예정
말레이시아 동해안철도	- 말레이시아의 저개발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 - 중국의 재원으로 2017년 착공, 2022년 완공 예정
홍콩-주하이-마카오교	- 중국 남부 주강 삼각주의 교통 연결성 개선 목적 - 2016년 10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7년 12월로 연기됨
차바하르항	- 파키스탄 과다르항 개발에 대응, 인도의 투자로 이란 남부에 건설 - 차바하르-자헤단 철도공사도 함께 진행(완공일은 현재 미정)
카라코람 고속도로	- 6대 경제회랑 중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구축의 일환 - 2015년 12월 확장공사가 착공되어 2017년 중 준공 예정

자료 : reconnectingasia.csis.org를 바탕으로 기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자료 : www.reconnectingasia.csis.org, 2016.12.21. / www.forbes.com, 2016.12.28.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2017년, 동남아시아 환적허브 경쟁 격화 전망

- 2017년 동남아시아 항만들은 올 4월부터 시작되는 선사 간 재편에 따른 물량확보를 위하여 상호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하역효율도 더욱 낮아질 것임
 - 해당지역은 이미 충분한 하역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신규항만이 건설될 경우 출혈 경쟁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됨
 - 실제 2017년, 싱가포르 Tusa항을 비롯하여 5개의 거대 항만건설 및 확장사업이 말라카해협에서 추진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현재 오래된 임대계약이 끝나가고 있어 항만 이전의 적기라 판단, 정부 차원의 장기적 관점에서 거대 규모의 Tuas항을 건설 중에 있음
 - 또한 거대 신규항만 건설을 통해 새로운 선사연합에게 싱가포르의 충분한 환적화물 처리능력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Tanjung Pelepas항과 Klang항의 확장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Tanjung Pelepas항과 Klang항의 확장계획은 사실 해당 항만의 주요 기항선사인 머스크 및 CMA CGM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 PSA 인터내셔널은 CMA CGM과 함께 4개의 선석을 운영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으며, 향후 CMA CGM 및 얼라이언스 선사들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이는 말레이시아 항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실제 CMA CGM은 Klang항 Westports 물량의 1/3, 수익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이중 일부 환적화물을 말레이시아 항만에서 싱가포르로 이전을 고려중임
- 중국 또한 말라카해협에서 자국의 에너지, 무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항만 확보를 위한 2개의 대형 신규항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말 중국은 말라카해협에 19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해당 지역의 기존 하역능력 및 물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지정학적 고려가 항만건설에 있어 시장논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 실제 Melaka Gateway항 건설사업은 중국이 말라카해협을 관통하는 자국의 에너지 및 화물 운송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임
 - 중국은 또한 말라카해협 입구에 위치한 싱가포르 인근 인도네시아 바탐섬의 Tanjung Sauh항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이미 해당지역의 충분한 하역능력에도 불구하고 해당계획은 연간 4백만 TEU의 하역능력을 갖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핵심으로 한 개발계획임

자료 : www.joc.com, 2017.01.02.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베트남 교통부, BOT 건설 도로구간 통행료 인하 발표

- 베트남 교통부는 당국에 BOT(Build-Operate-Transfer)를 활용하여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인하조치로 23개의 구간에 대한 통행료가 인하될 예정이며,
 - 이는 전국 45개 BOT 건설도로구간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10~15% 인하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한 후속 조치임
-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교통부 산하에 총 86개의 BOT 통행료 징수구간이 있고, 그 중 45개 구간이 실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통행료는 최저 VND25,000(US\$1.1)에서 최고 VND180,000(US\$8.1) 사이였음
- 하지만, 현행 통행료가 너무 비싸고 어떤 구간은 단지 몇 백 미터의 거리만 사용하고자도 통행료를 지불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이용자로부터 수많은 항의를 받아왔음
- 주요 통행료 인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그룹의 12인승 이하, 중량 2톤 적재 이하, 일반버스 및 2그룹의 12~30인승 또는 중량 2~4톤 차량은 VND45,000(US\$2)에서 VND35,000~40,000(US\$1.6~1.7)로 인하함
 - 4그룹의 10~18톤 차량, 20FT 컨테이너트럭 및 5그룹의 18톤 이상, 40F 컨테이너트럭은 VND20,000(US\$0.9)의 새로운 통행료를 적용함
- 베트남 교통부는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톨게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카우제(Cau Gie)-닌빈(Ninh Binh) 고속도로의 다이수옌(Dai Xuyen) 톨게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며, 이 철거로 인해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Nguyen Hong Truong 교통부차관은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서 추후 베트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자료 : Vietnam News, 2016.12.2.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물류시장동향

Mann+Hummel²⁾ 남아공에 애프터마켓 물류센터 운영 예정

- Mann+Hummel은 2016년 11월 남아공에 지사를 설립한데 이어 2017년 1월에 요하네스버그에 애프터마켓 물류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아프리카에서 자사 최초의 자산을 보유하게 됨
 -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임
 - 정치 및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어 사업에 적합한 시장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
 - 전략적으로 고객에 접근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지사를 설립하게 됨
 -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남아공 지사 설립의 계기가 됨
- Mann+Hummel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진출하게 위해 시장을 조사하고 있음
 - 아프리카 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 : www.automotivelogistics.media, 2016.12.22.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한진해운, 시애틀항의 터미널 운영권 매각

- 한진해운은 TTI (Total Terminals International)에 대한 지분 매각 합의의 일환으로 시애틀항의 운영권을 포기함
 - MSC는 자회사인 TIL (Terminal Investment Limited)사를 통해 시애틀항의 46번 터미널과 롱비치항 터미널의 운영사인 TTI의 지분 54%를 매입할 예정
 - 롱비치 항만위원회는 MSC가 381에이커 규모로 가장 큰 터미널인 Pier-T 컨테이너 터미널의 단독 인수를 승인함
 - MSC의 자회사 TIL은 이미 TTI의 지분 46%를 보유 중

자료 : www.worldmaritimenews.com, 2016.12.30.

김병주 연구원
051-797-4779, bjkim17@kmi.re.kr

2) 독일의 여과장치 제조업체